

강화군 달라지는 군정방향 제시, "필요로운 강화 만든다"

6개 분야 106개 사업, “행복이 일상이 되는 필요한 강화 만든다”



유천호 강화군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강화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했다.

2023년도 달라진 주요 제도와 시책은 ▲복지·보건·교육분야 21건 ▲안전·환경분야 24건 ▲생활·경제분야 8건 ▲농·축·수산분야 20건 ▲문화·관광분야 10건 ▲도로·교통분야 23건으로 6개 분야 106개 사업이다.

우선, **복지·보건·교육 분야**에서는 강화군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한다. 강화군 복지재단은 강화형 복지서비스 개발, 복지 기부금 모금·배분 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복지 조사 연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사업을 펼쳐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화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인력과 예산을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어 특별활동을 새롭게 지원한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 CCTV를 도입해 범죄 등 안전위기를 예측해 대응하고, 노후 공동주택 수리 지원대상으로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던 재해 우려 응벽 보수와 옥상방수를 지원한다.

범죄를 예측하고 안전위기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지능형 CCTV를 대폭 확충하고, 노후 공동주택 수리 지원대상으로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던 재해 우려 응벽 보수와 옥상방수를 지원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용 전기온풍기를 새롭게 지원해 동절기 시설재배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나서며, 어업인의 출어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 이내의 유류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또한, 수산물 택배비 지원은 기존 도서 지역(서도면)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읍·면으로 확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함상공원이 오는 4월 새롭게 개장하고, 수도권 최대 휴양시설인 화개정원과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오는 5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정원입구에서 전망대까지 모노레일로 편하게 이동하며, 화개정원의 빼어난 풍광을 조망할 수 있고, 전망대에서는 한강 하구와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과 북녘 땅의 예성강을 따라 펼쳐진 연백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오는 4월 봄 콘서트를 시작으로 문화재야행과 화개정원 축제, 10월에 콘서트, 연말 뮤지컬 갈라쇼 등 대형 문화공연이 줄줄이 열며, 버스킹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 예술 공연이 연중 펼쳐질 예정이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보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 9개소가 새롭게 개설된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미래 인재를 위한 군정시책 강화

유천호 군수 “교육비 부담없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군 제2장학관 개관식(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 청소년 맞춤형 교육제도와 군정시책을 마련하고, 일부는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는 영어 특별활동운동을 제공한다. 역할놀이, 요리교실,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외국어 표현과 어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은 올해 50억 원을 증액해 1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장학금 수혜학생은 기존 70명에서 30명이 증원된 100명이 매년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생 등록금은 기존 다자녀에 한정해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모든 가정의 대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해외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30명이었던 인원을 올해는 80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조비율도 80%에서 90%로 늘려 부담을 줄였다.

또한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3·4장학관을 추가로 조성한다. 제3장학관은 서울 강북지역에 100실 이상 규모로 오는 9월까지, 제4장학관은 인천 연수구에 오는 7월까지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설이 완료되면 기존 서울 영등포와 중구에 위치한 제1·2장학관과 함께 수도권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경비보조금(25억 원) ▲초등 등·하교 안심알림서비스(1억1천만 원)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12억4천만 원)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화군,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을 위해 미래 인재들에 대한 군정시책을 강화했다”며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규모 3,002억 원 확보

역대 최대 3,002억원 확보,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탄력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도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규모인 3,002억 원을 확보하며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3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272억 원을 합한 3,002억 원으로 지난해(2,702억 원)보다 11.1% 증액되며 지방교부세 3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실제 재정수입액의 차액을 보존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군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확보에 주력해 왔다. 재정 수요액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를 철저히 수집·관리하고, 합동 집무를 통해 교부세 산정지표를 분석하는 등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교부세 증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의원 등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한 결과 이번에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런 성과”라며 “지방교부세는 국·시비 보조금과는 달리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사업을 해결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 경제 활성화 기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장곶항 선정, 100억 원 투입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장곶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과 소규모 어항의 안전 수준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어촌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장곶항이 위치한 석모도는 서해 낙조가 장관을 이루는 민머루 해수욕장, 우리나라 3대 기도사찰인 보문사를 비롯해 미네랄 온천,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으로 수도권 제일의 힐링여행지로 손꼽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곶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기반 마련과 함께 역사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구로 탈바꿈돼 해양관광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곶항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어촌·어항 생활서비스와 창업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과 수산물 가공시설이 들어서며,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석모도 바람길, 장곶항 편의공간, 방파제 진입로, 안심골목, 어항구역 안전시설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해양레저 관광 어촌·항구의 기반을 다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지역에 활기를 돌도록 하겠다"며 "더 많은 항포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을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 "강화(江華)형 복지체계를 구축" 당부 강화군복지재단 출범! 강화형 복지체계 구축한다



강화군복지재단이 지난 18일 강화군행복센터에서 출범식 및 취임식(초대 이사장 오윤근)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화군 이태산 부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 복지관련 유관단체장이 참석해 재단 출범을 축하했다.

군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 4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복지재단은 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민·관 복지시설 교류와 기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복지 조사연구 ▲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관리 ▲민·관 협력 및 지원 ▲복지 기부금 모금 및 배부 ▲지역 사회복지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히,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비율 40.6%, 장애인 비율 8.5%, 저소득층 비율은 6.0% 이르는 만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 복지재단이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강화(江華)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승진 인사 및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 일선에서 군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강화군의회 하반기 승진 및 표창 수여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30일 승진 인사와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와 표창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두 번째 시행하는 승진 인사와 표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의결하고, 23일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

박승한 의장은 “군의회는 두 번째 자체 승진 인사 및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회 직원 모두 지방분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군의회, 일선 현장근로자 위문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1월 16일 강화읍 남산리에 위치한 도로 보수원 대기실 및 강화읍 용정리에 위치한 강화군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화군 도로 보수원 대기실에는 강화 전체의 도로를 관리하는 7명의 직원들이 군민들의 안전사고 및 도로 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소각장에는 20명의 직원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쌀국수,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한 의장은 불철주야 군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겨울철 도로의 제설작업 철저 및 직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현장근로자 위문



강화군의회 현장근로자 위문

<http://council.ganghwa.go.kr>

군민과 함께! 행정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회

강화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강화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 확대 노력 재활용동네마당 50개소 추가 설치,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모으면 자원이 되는 쓰레기의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쓰레기 감량과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 오는 5월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5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요일에 상관없이 종이, 플라스틱,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상시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

시설이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반응형 감시카메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며,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주민 의견,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큰 곳에 445개소를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5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자원관리사 102명을 투입해 동네마당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쓰레기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강화군재활용 전용봉투’를 읍·면 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기존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던 쓰레기봉투를 ▲투명 페트병 ▲캔 ▲플라스틱 ▲유리병 등 4종류로 구분해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어디를 가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강화군, ‘2023년 강화군 건설기획단’ 운영

공무원 직접 설계로 예산절감·공사조기발주 단축 / 지역자재 우선구매,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강화군 건설기획단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하며 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나섰다.

‘강화군 건설기획단’은 군 소속 시설직 공무원들이 모여 소규모 주민편의 건설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임시조직이다.

특히, 용역비를 절감하고 빠른 착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밝은 공무원들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 기획단은 건설사업 205건(공사비 98억 원)에 대해 자체 측량·설계를 진행해 8억 원의 설계비 예산절감 효과가 전망된다. 또한, 실거래가격과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한 설계로 지역 자재 사용과 지역 건설사 참여율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설계기간 단축에 따른 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건설경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리적인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조기발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 앞장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 오는 2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강화군(유천호 군수)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으로는 지역 농특산물이 제공된다.

군은 강화섬쌀을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답례품을 8개 품목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답례 품목은 '강화군 답례품선정위'에서 의결을 거친 8개 품목 강화섬쌀, 강화인삼, 사자발약쑥, 강화순무, 속노랑고구마, 강화한우, 새우젓, 화문석이다.

유천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도 이익이 되는 1석 4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고향 발전을 위해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www.ilovegohyang.go.kr>)를 통하거나,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6일, 27일에 강화군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재무과(☎032-930-3297)로 문의하면 된다. ▣



강화군을 살리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기부 주체** 개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자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단체 기부 불가
- 기부 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3만원 이내의 답례품 (지역특산품 등) 제공
 - 10만원 초과분은 16.5% 연말정산 세액공제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제공
- 기부 방법**
 - 온라인접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농협창구

*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강화군,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3년 연속 수상

재무회계 투명성 및 모범적 재정운영으로 높은 평가



강화군이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모범적인 재정운영을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 16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행정안전부,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심사평가하는 국내 공공 회계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투명성·신뢰도 향상 및 주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범적인 재정운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방분권 시대에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 회계대상에서 강화군은 군민들이 한눈에 군의 재정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든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는 등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재정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노인회, '강화군 노인회 50년사' 출판기념회

강화군노인회(회장 장기천)는 지난 반세기 노인회의 발자취를 모아 '강화군노인회 50년사'를 출판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군 노인회 50년사'는 시대를 앞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로 평가된다. 자료수집, 원고작성, 사진 촬영, 편집 등 책자 발간의 모든 과정을 노인회 사무국과 편찬위의 자체 인력으로 진행하며 후대에 남길 사료를 꼼꼼하게 발굴했다.

강화군 노인회는 노인운동의 초창기인 1965년 1월 하점면 창우리 간곡노인회로 출발해 1971년 5월 30일 강화군지회가 창립됨으로써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노인회가 결성됐다.

초대 이병년 회장부터 현 16대 장기천 회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회장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헌신해 강화노인회를 전국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특히, 노인대학개설, 회관건립, 복지관 개관 등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노인회를 발전시켜 왔다.

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천 회장의 의지와 격려, 그리고 유천호 강화군수의 지원으로 마련된 50년사는 각 경로당, 관내 기관단

체 및 전국 280개소에 달하는 노인회 지회 등에 배부해 100세 시대의 어르신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천 회장은 "역대 회장들의 선각자적 시대정신과 함께 강화군의 관심과 성원을 더해, 우리의 성장과 도약의 길을 열어간다는 희망으로 5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노인회 50년사 출판기념회

창업정신 무장 청년육성 & 지역 경제 활성화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19주요사업 본격 추진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 이하 '센터')가 2023년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센터는 업무협약 기관·단체의 교수와 박사 등 30여 명의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지난해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19개 사업을 확정하고 년과 중장년들의 꿈과 도전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 유튜브·라이브 커머스 창업·창직가 및 청년 창업 지원자 과정을 수료한 청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창업 고도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신규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홍보마케팅 창업·창직,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홍보서포터스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세대 융합형(가족형) 창업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 등을 추진하며, 센터 이용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나를 세우는 진로 설계 ▲청년취업 역량강화 원데이워크숍 ▲현직 멘토와 함께하는 강화형 청년 직무 캠프 ▲강화군 취업 박람회 개최 ▲강화군 청년 면접 지원 ▲취업 동기부여 및 자기 계발 아카데미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등을 운영해 구직자의 역량과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2021년 9월 중앙시장 B동 3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단순 일자리 연계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강화군 유유기지'가 올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유기지'는 스튜디오 및 회의실, 휴식공간, IT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청년들의 문화휴식 및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윤정혁 센터장은 "지역에 창업 기회와 일자리가 넘치도록 시대흐름에 맞춘 다양한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제2기 강화 주니어 외교관' 성과 보고회

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양성



이어, 그간 수행했던 외교활동의 성과를 조명하는 영상 상영과 참가자들의 활동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강화 주니어 외교관’은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국제교류 커뮤니티이다. 주니어 외교관들은 강화군의 국제우호도시 미국 팰리세이즈파크시, 중국 주산시 청소년과 비대면 교류, 컬처 박스 교환, 홍보 V-log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민간 외교관으로 역량을 뽐냈다.

또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강화 원도심 투어 서포터스 활동, 국제기구(UNESCAP) 방문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 소양과 자질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며 “주니어 외교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역량을 키워 국제무대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주니어 외교관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진행한 ‘제2기 강화 주니어 외교관’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태산 부군수는 주니어 외교관에게 활동증명서를 수여하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당부했다.

강화군,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단 출국

글로벌 인재 양성,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3년 만에 ‘강화군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단’을 재개했다.

군은 지역 청소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화읍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군은 교육비 및 경비 90%를 지원했다.

어학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 수업을 비롯해 유적지 탐방, 박물관 견학, 학생교류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의 안목을 갖추는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단’은 지난 8일 출국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연수단은 관내 중·고등학교 80명 규모로 태국 방콕의 은혜국제학교에서 원어

민 교사들의 지도 아래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은혜국제학교는 Ministry of Education in Thailand(태국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로 태국 학력 인증기관인 ONESQA 인증을 득한 검증된 교육기관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한 이번 연수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은 연수를 준비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사전점검단을 운영하고 현지답사,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인솔교사단 사전협의회 등을 개최했으며, 인솔단을 현지에 파견해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기회는 물론 새로운 외국문화를 체험해 국제사회의 안목까지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청소년 해외연수단

인천시, 어촌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는다

수산물 공급, 어촌 정주여건 개선위해 어촌·수산 예산 770억 확보 / 어항기반구축, 어업지도선 건조,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



창후항 어촌뉴딜 조감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지난해 보다 124억원, 19.1%가 늘어난 총 7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도 시는 어촌뉴딜300사업 2단계 5개소를 90% 공정율을 진행했으며,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지원범위를 전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서해5도서 및 접경해역의 어장확장,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에 노력했으며, 연안어장의 자원증강을 위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인공어초 28ha/307개), 종자방류(517만미)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해양 생태계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공, 냉장·냉동 시설지원, 수산물 상생할인(30% 할인), 전통어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행사(국비 964백만원) 등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인천어촌특화센터에서는 강화군 흥왕꽃게탕(가정간편식), 옹진군 영암바지락 고추장찌개(가정간편식), 연평꽃게 육수팩 등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해 해양수산부 주관 성과 평가회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촌·섬 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해 ①어촌 신(新) 활력 증진사업 ②어항 기반시설 구축 ③어업지도선 건조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④필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⑤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활성화 사업의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① 어촌 신(新)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인천시는 2024년까지 강화군, 옹진군, 중구의 어촌지역 16개소에 총 사업비 1,644억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5개소)을 완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주민의 74% 이상 만족했으며, 2단계 사업(5개소)은 전체 공정률 90%를 달성했다. 또 3단계 사업(3개소)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며, 4단계 사업(3개소)은 해양수산부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수부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27년까지 공모로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지난해 사업대상지 4개소(강화군 1, 옹진군 2, 중구 1, 사업비 500억)를 발굴해 공모 신청했으며, 최소 3개소 이상 선정목표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② 어항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과 태풍·월파로 인한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및 안전한 어항을 건설한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65억 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4개항(주문항, 진두항, 답동항, 대무의항)에 33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5개항에 7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8억 원을 편성해 정비할 계획이다.

③ 어업지도선 건조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어업지도선이 노후(선령27년)됨에 따라 옹진군 1척을 필두로 5년간 5척을 대체건조 한다.

그동안 국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재원 확보가 곤란했으나, 올해는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100톤급 어업지도선 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강화·옹진군 접경해역 등에 대한 열악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접경해역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해수부와 국방부에 건의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강화 해역(창후항 인근) 조업한계선 일부 조정을 요청해 어선들의 불가피한 위법 사항 등을 개선 할 예정이며, 만도리 어장 등에서 조업 시 어선들의 성어기 야간 입·출항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돼 어선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어업용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예산 20억 원으로 기름값 구입가액의 5~10%, 톤급별 300~600만 원까지 지원해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④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바다 조성

수산종자 방류 및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이상기후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특히, 자원 조성과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실시한 수산종자·종패 방류사업에는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인 23억 3천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인공어초시설 사업(18억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5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효과조사를 실시·검증할 계획이다.

수산종자 방류 및 인공어초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꽃게 6.14배, 넙치 2.72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어초 시설 지역에서는 꽃게, 조피볼락, 쥐노래미 등 어획량이 약 2~4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외에도 노후화된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생산 기반 조성(21억1천만원)을 통해 양식어장 환경개선·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에 기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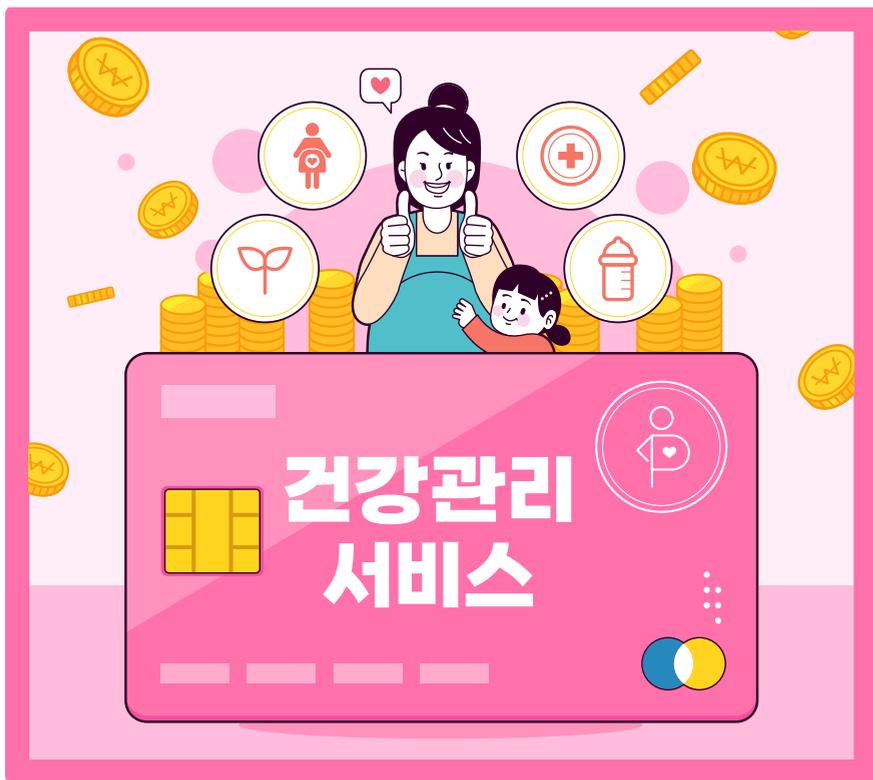
⑤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30억 원)을 위해 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지원으로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촉진(21억 원)을 위해서는 수산물 포장용기와 저장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관광상품 개발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운영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위해 7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의 특화상품 개발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어촌체험휴양마을 7개소를 대상으로 조개개기·해상낚시·통발 체험·갯벌마차체험 등 어촌체험과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구감소 및 사회구조 변화에 취약한 어촌 및 섬·연안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자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심지 개발사업 중심이 아닌 어촌과 어업인도 소외받지 않는 지원 정책과 어촌·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둘째아도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째아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긴급대책 마련,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해 현금지원

인천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원 특별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생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1만 4백여 가구와 시비지원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특별지원은 한파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전체 11만 4백여 저소득 가구에 10만 원씩, 총 110억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지원 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대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범위에서 난방비 11억 5천만 원을 별도 추가 지원해 시설이용자들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2.0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

- 권주형 기자

강화군행복센터, 키즈카페 무료 개방 '계명원'천사들의 행복한 하루



계명원 '천사들의 행복한 하루'

강화군행복센터는 지난 9일 관내 '계명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키즈 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계명원'은 1951년 설립 이후, 아이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한 꿈을 지니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계명원 관계자는 "키즈카페에서 뛰어놀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다"며 "무료 개방을 해주신 강화군행복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복센터 관계자는 "모든 아이들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며 행복을 느끼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이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설맞이 강화섬쌀 1000kg 기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강화섬쌀 1000kg 기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은 지난 17일 사랑의집(용정리), 계명원(조산리), 장애인회관(신문리) 3개소에 강화섬쌀(10kg) 100포를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공단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하는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단은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 및 연말 등 정기적으로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 및 기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에서 구매한 쌀로 기탁하여 지역농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송왕근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아끼지않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설날을 맞이하여 이런 날일수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더욱 잘 살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1**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요가·풍물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화도면 2023 주민자치프로그램 개강

강화군 화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철순)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난 17일 개강했다.

요가, 풍물교실, 몸펴기운동, 웰빙댄스의 총 4개 강좌가 운영되며 특히 요가교실은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진행된다.

고철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전에는 3월부터 운영하던 것을 수강생의 요청에 힘입어 1월 중순에 일찍 개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연 화도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읍 기관단체 ‘사랑의 물품 나눔’ 실시

강화군 강화읍 이장단 등 7개 단체는 지난 17일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김(216박스)과 라면(200박스)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 날 물품은 관내 단체인 강화읍노인회 및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진흥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7개 단체에서 후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류제인 노인회장은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우종 강화읍장은 “매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모아 주시는 강화읍 기관 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1**



강화읍 기관단체 나눔

송해면 유관단체,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

강화군 송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효승)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행사(손두부·한과 160세트, 360만 원 상당)를 가졌다.

협의체 주관 하에 관내 9개 단체(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체육진흥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업경영인,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문품을 마련했으며, 저소득 가정 및 독거어르신 16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나눴다.

유정진 송해면장은 “매 명절마다 위문품을 마련해 주시는 관내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생과 협력으로 온정이 가득한 송해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



송해면 이웃나눔 행사

하점면 유관단체,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 기탁

강화군 하점면 유관단체는 지난 19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하점면 이장단 및 노인회, 체육진흥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농촌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100만 원씩을 모아 마련했다.

이연승 이장단장은 “유관단체들이 마련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용선 하점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하점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하점면 유관단체 성금기탁

불은면 유관단체, 이웃사랑 온정 물품 나눔행사

강화군 불은면 유관단체에서 지난 17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위한 김과 라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불은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체육진흥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11개 유관단체가 참여했다.

구본용 이장단장은 “추운 겨울 설을 맞아 사랑의 손길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따뜻한 불은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고생하시는 유관단체들에 감사드리며, 정이 넘치는 불은면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①



불은면 유관단체 물품 나눔

선원면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 선원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유갑희)가 지난 10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선원면사무소에 기탁하며 훈훈한 새해를 맞이했다.

기탁 받은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선원면 관내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유갑희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한해를 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서광석 선원면장은 “새해의 시작을 따뜻하게 열어준 새마을부녀회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선원면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①



선원면 새마을부녀회 기탁

양도면 농업회사법인 '약석원', 결식아동에 즉석 현미밥 420개 기탁

강화군 양도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약석원'(대표 오민석)이 지난 18일 즉석현미밥 420개를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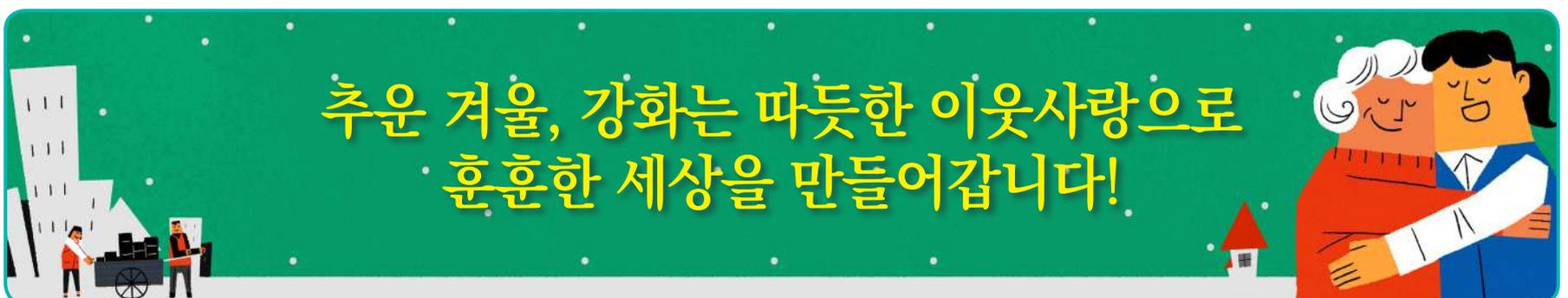
오민석 대표는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 없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기탁 받은 물품은 관내 결식아동과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①

- 최백하 기자



양도면 약석원 기탁



‘KBS 열린음악회’, ‘1박2일’등 방송촬영 명소로 주목받는 강화군

최근 강화도가 ‘KBS 1박2일’, ‘KBS 열린음악회’,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되면서 방송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한 강화도는 개국 5천년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고루 갖춘 섬으로 주목받았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힐링

지난해 11월 ‘KBS 1박2일(뉴 친스와 함께하는 텐션 업 여행)’에서는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교동도 화개정원을 배경으로 서해 풍경이 방영됐다.



화개정원 스카이워크 전망대_교동면

화개정원은 역사·문화·평화·추억·치유를 테마로 석가원, 물과 폭포, 암석원 등 공원같은 정원시설 뿐 아니라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는 한강하구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과 북녘 땅에 흐르는 예성강을 따라 펼쳐진 연백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한 정원입구에서 전망대까지 모노레일로 편하게 이동하며, 화개정원의 빼어난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KBS 열린음악회’가 북녘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개정원에서 열리며, 온 국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눴다.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군

강화 원도심에는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된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 강화성당, 조양방직,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소창체험관, VR 실감형 체험관 등의 볼거리가 골목골목에 위치해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가 좋다.

최근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최근 대폭 확충해 접근성도 좋고, 새롭게 조성한 북산역사공원과 남산공원에서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강화성공회_강화읍

장화리 일몰 조망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남주와 여주의 데이트 명소인 장화리 일몰 조망지 낙조마을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붉은 노을로 물든 서해의 섬들과 바다를 보며,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



장화리 일몰_화도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한 강화도는
개국 5천년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고루 갖춘 섬**



겨울철, 습기로운 환기 수칙

쾌적한 실내 환경, 감염병 예방까지..

사계절 중 환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걱정에 환기시키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실내 환기를 소홀히 하면 탁해진 공기 및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해 곰팡이 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 안 곳곳에 발생한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 및 천식,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실이나 학교, 학원 등 실내에서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라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실내공기가 탁해지고, 유기체 농도가 높아지면서 알레르기 비염 및 상기도 감염에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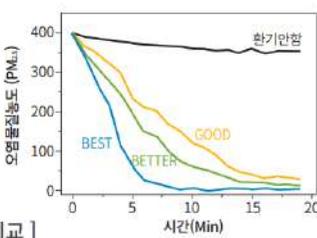
탁한 실내공기는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켜 일상생활의 불편함(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뿐 아니라 수면 방해로 이어져 피로 및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치료 국제 가이드라인인 ARIA(Allergic Rhinitis and its Impact on Asthma)에서는 수면장애 유무를 알레르기 비염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쾌적한 실내환경인 온도 18~21도, 습도 40~60%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환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외 기온차이가 큰 겨울에는 공기 순환이 빠르게 이뤄져 10분만 환기를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맞통풍 환기는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 공기가 맞은편 창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선풍기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환기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권명희 연구관은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는 대기가 침체돼 오염물질이 정체돼 있을 수 있으니, 대기 이동이 활발한 오전 9시~오후 6시에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 중 벤젠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 사용 후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때때로 옷장이나 서랍장을 모두 열고 환기를 하면 내부에 고여있던 오염물질이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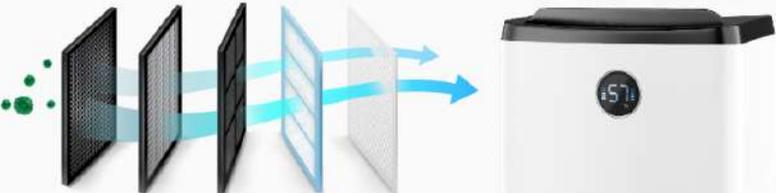
공동주택의 경우 연돌현상으로 인해 화장실 배관이나 환기구를 통해 유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장실 배기팬이나 레인지 후드를 상시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좋음·보통($80\mu\text{g}/\text{m}^3$ 이하)일 때는 30분 이상, 나쁨($81\sim 150\mu\text{g}/\text{m}^3$) 또는 매우 나쁨($151\mu\text{g}/\text{m}^3$ 이상)인 경우에는 3~5분 정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환기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
- ✓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일반적으로 집진필터(헤파필터)는 6개월~1년 사이에 교체, 제조사의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24시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더라도 공기가 흐르지 못하고 머물게 되면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고 자연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에 표시된 적정 용량(적용 평수)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용량의 1.5배 초과 제품을 사용할 때 우수한 효율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기계적 환기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 수시로 환기팬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 입구에 먼지 제거 매트를 깔고, 실내에서는 되도록 실내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시간이 길수록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습기로운 환기 수칙을 준수하여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http://www.xinch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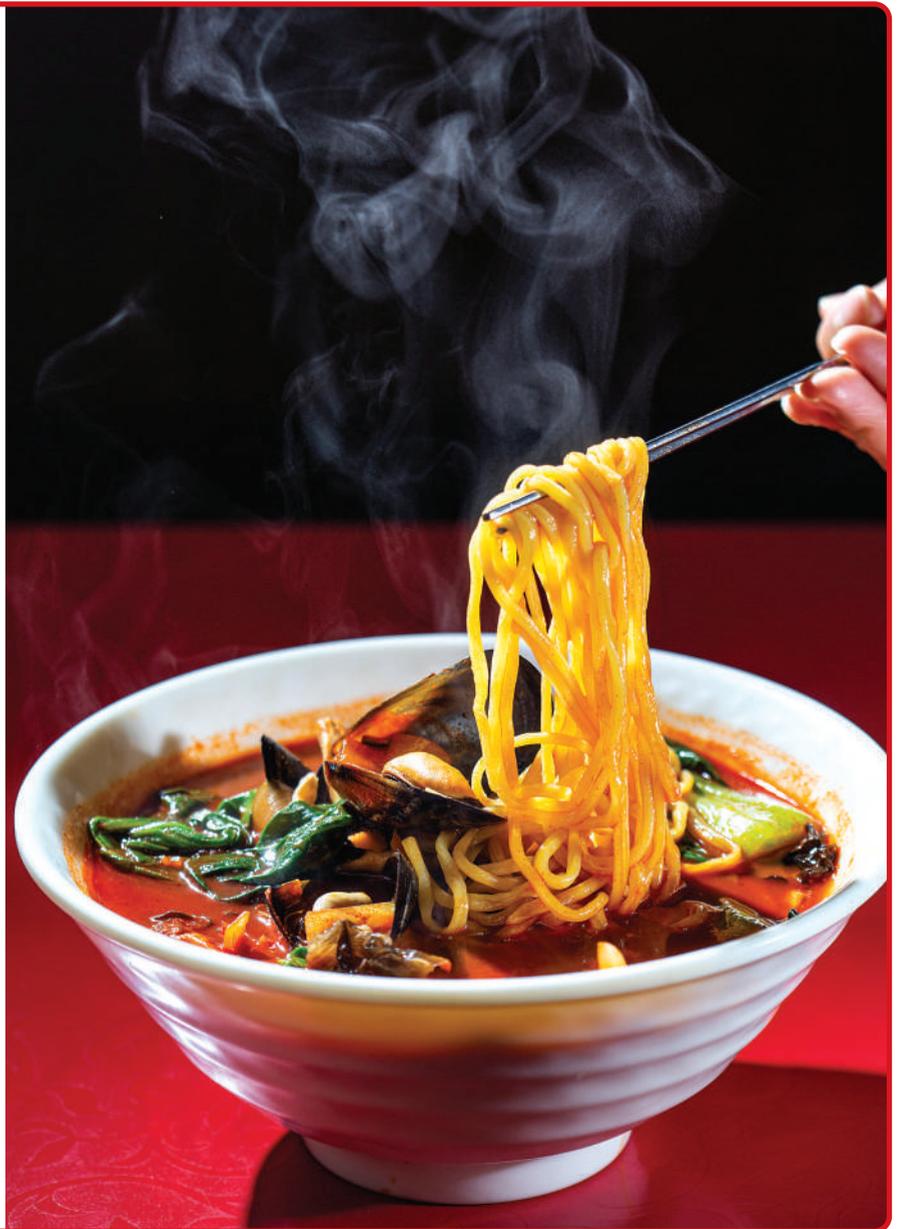
SINCE 1975
Xin
Chinese Restaurant [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개업한 저희 Xin은
변함없는 맛으로 고객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대표 파충민
010_3650_1534

예약전화_ 032) 932-9884~5

Chinese Restaurant Xin [신]
A_23050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66
강화군청(옆)에서 길상면 온수리로 이전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